

시 당선작

# 미역국

강일규

산부인과 병원 근처엔 혼자 우는 울음이 많다

팔을 벌리고 부를 이름이 없어  
한낮에도 울음이 바람을 끌어안고 멸망을 낳는다

저만치 뒤따라오던 아내가  
전봇대를 붙잡고 이름 없는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다

미안  
미안

건너편 정류장에서도  
한 여인이 어리어리한 옛된 딸아이를 끌어안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

대기실에서 마주쳤던  
한 남자와 한 남자가 보호자란 인연으로  
눈빛이 스칠 때마다 놓친 연과 놓은 연을 위로했다

아내의 울음이  
자궁 밖으로 다 빠져나가길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소고기 반 근을 샀다



그림=이형우

시 당선 소감

## “아픈 이들 보듬는 따뜻한 시 쓰겠다”

시클라멘 화분에 영희 씨 꽃씨지만 붉은 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터트리기 전 배란다에서 햇살을 즐긴다는 그녀, 피고 지면 또 다른 꽃대가 올라온다 했습니다. 더 이상 꽃이 피지 않을 때가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라는 말에 물기 어린 글을 썼다 지우고 다시 시도 쓰고...

오늘, 꽃이 피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퇴근길이었지요. 한겨울에 이토록 화사한 꽃을 피우다니... 올해를 넘기지 않아 다행입니다. 눈발이 바로 땅에 닿지 못하고 공중에 부유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들도 심장이 뛰는구나.’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운전을 멈춰야 했습니다. 눈의 방향을 따라 걸었습니다. 큰길의 환한 불빛을 의지한 골목은 차갑고 희미했지요. 내 시작의 지향점과 닮아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시의 무게로 받아들

일 때까지 견뎌낸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시를 쓰겠습니다. 그런 글들이 모여 내 자신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에 가장 빨리 전염된 나의 영희 씨, 연수와 지연이 사랑해. 그동안 응원해 줘서 고마워.

시의 첫 걸음을 옮기게 일깨워 준 강희안 교수님, 인문학 강의로 시적 사유를 확장시켜 준 소설가 연용홍 교수님, 좌절과 절망으로 방황할 때마다 시의 연을 단단하게 붙잡아 준 이돈형 시인님, 시의 길에서 만난 수레바퀴문학회와 시강때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게 따뜻한 손 내밀어 주신 강대선 심사위원님과 전남매일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58년 충북 영동 출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 졸업



강일규

시 심사평

## 고통받은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

책상 위에 쌓인 응모작을 읽었다. 정성을 다해 보내온 시들이라 하루를 읽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시대에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져인지 고독과 우울한 내면을 다룬 시가 많았고 가족 서사와 함께 일상을 소재로 한 시들도 적지 않았다. 사유의 깊이를 언어로 형상화한 시에 먼저 눈이 갔다.

그중에 ‘뫼모습’, ‘여우야 여우야’, ‘미역국’ 등이 시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었다. ‘뫼모습’은 시장의 노파를 세우로 비유하는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어시장에서 노파의 삶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좋았으나 너무 쉽게 풀린 부분이 있고 함께 제출한 시들의 수준이 고르지 못해 아쉬움을 주었다.

‘여우야 여우야’는 코로나19로 격리된 상황을 동요로 표현한 발상이 신선했다. 하지만 몇몇 시어들이 전체적인 시적 긴장감을 반감시켜 작품을 선정하는데 망설이

게 했다. ‘미역국’은 아기를 잃은 ‘아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다른 이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지점에 마음이 갔다. 코로나19 시대에 고통받는 현대인들에게 공감과 연민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울림이 컸다. 나머지 작품의 수준이 고른 점도 신뢰를 주었다. 축하드린다. 깊은 울림을 주는 참신한 서정성을 기대한다. 당선되지 못한 분들도 빛을 발하리라 믿는다.

◇약력  
‘동아일보’ 신춘문에 시조와 ‘광주일보’ 신춘문에 시에 당선, ‘시와사람’에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전남작가회원이며 시집으로 ‘메타자본세과이어 신전’ 외 4권이 있다. 한국해양문학상, 한국가사문학상, 여수해양문학상 소설부문 대상, 김우중 문학상, 제8회 직지소설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다.



강대선 시인



2022 전남매일 신춘문에 ‘골드문학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간의 연대보다는 혐오와 배척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재, 문학의 역할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응모작은 장기화되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외로움과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시·단편소설·동화 3개 부문에서 작품이 응모했으며 지난해 말 본사 대표이사실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강대선 시인, 심윤경 소설가, 임정자 동화작가가 참여했다. /김생훈 기자